

## 두 마음(二心)

**이 명 직** 목사님(1890.12.2-1973.3 30)은 한국성결 교회의 사부로 존경받으시는 분 이시다. 목사님은 성서학자로 신학자로 교육자로 설교자로 한국성결교회사에 큰 영향을 끼치셨다. 본란에 본지 발행인 홍순관목사가 그분의 설교를 현대적인 어법으로 재정리한 것을 통해 그분의 그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본다.

**아** 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죄인 들아 손을 깨끗이하고, 두마음을 품은 자들이 마음을 정결케 하라”(약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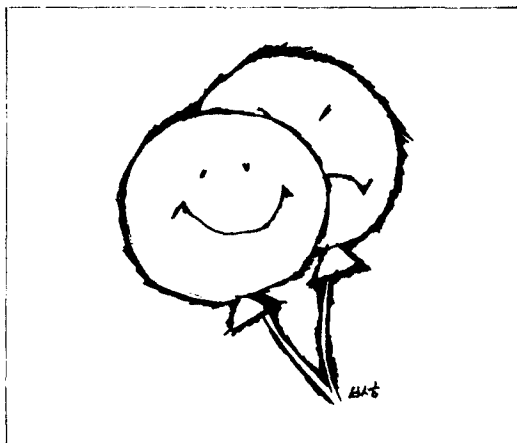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말한 “내 속에 거하는 죄”를 야고보는 “두 마음”이라고 하였다. 성경에 “내 속에 거하는 죄”의 별명이 많이 있습니다. “두 마음”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 두 마음이란?

본문에 “정결케 하라”한 것을 보면, 어느 부분만을 가르치는 것이지 전체가 불경하다는 의미는 아닌 줄을 알겠습니다. “두 마음”은 선(善)과 악(惡), 주(主)와 객(客), 신(新)과

구(舊)의 이중(二重) 심리(心理)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그 악한 성질을 정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옛 사람들의 말에 “한 날에는 두 날이 없고, 한 나라에 두 임금이 없다”고 하였 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은 한 마음, 곧 일심(一心)하여야 합니다. 백성된 자로서 마땅히 한 임금을 섬겨야 하고, 지어미 된 자 마땅히 한 지아비를 섬겨야 하는 것처럼, 우리 신자들은 마땅히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나라에 임금이 둘이면 전쟁이 일어나고, 집에 두 지어미가 있으면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으로 우리 신자는 한 마음이라야 완전함에 이



여 섬길 수 없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하나님과 마귀를 섬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는, 한 길로 갈 수 없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두 마음을 품은 자는 깨끗함을 받아야 합니다. 객심(客心)과 악심(惡心)과 구심(舊心)을

르게 됩니다.

몰아내야 합니다.

신화된 자가 두 마음을 품으면 역적이 되기 쉽고, 지어미 된 자가 두 마음을 품으면 음행하기 쉽습니다. 옛날 중국에 재나라와 초나라 사이에 등나라가 있었는데, 등나라는 초나라가 흥하면 초나라를 섬기고, 재나라가 흥하면 재나라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재나라와 초나라에 흥하고 쇠함에 따라서 등나라는 변하였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 역시 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옛 말에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아니하며, 열녀(烈女)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아니한다”(忠臣不事二君, 烈女不敬二夫)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

### 두 마음의 예

두 마음은 품은 자에게는 평화가 없습니다. 서로간에 충돌이 있어 아침 저녁으로 번덕을 부립니다. 한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가정에 사라와 하갈, 이삭과 이스마엘에 관한 이야기에서 보여 주듯이 화기(和氣)차고, 단란하던 가정에 하루 아침에 비극이 나타나게 됨은, 사라는 나이 90세가 되도록 자녀를 출산하지 못함으로 자기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나는 이미 늙어 경수(經水)가 그쳤으니, 애급에서 데려온 하갈로 인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날런지 모른다 하며 하갈을

남편에게 천거하는 지라, 아브라함은 아내의 유혹에 그 믿음이 흔들려 전에 하나님을 믿던 신앙은 날아가고 하갈을 가까이 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니 하갈과 사라 사이에 충돌이 생기고,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 충돌이 일어 그 가정에 평화와 사랑은 떠나가고, 불평과 살기만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게 되었습니다.

또 창세기 25장에 보면, 리브가가 잉태하였는데 쌍태(雙胎)가 뱃속에서 서로 싸우는 지라, 여호와 앞에 나아가 물은 즉 여호와와의 말씀이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 부터 나누이리라”(창 25:23) 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영에 속한 분자(分子)와 육에 속한 분자(分子)가 있어서 한 편에서는 믿으려 하고, 다른 한 편에서는 믿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한 편에서는 선을 행하려하고 다른 한 편에서는 악을 행하려 합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가진 자는 늘 마음에서의 싸움이 끊이지 않아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지낼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하심은, 죄의 법이 있어 성령의 법을 지배하려 하기 때문에 서로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에 법이 둘이면 충돌하게 되는데 것과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거슬러 대적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마치 일로(日露), 일지(日支), 독불(獨佛) 관계(참고=오늘의 남북한 관계)와 비슷합니다. 불안이 끊임 새 없고 평화가 없는 삶입니다. 죄의 법을 없이 하든지, 나의 법에 복종하든지, 한 편에 치우치기 전에는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마치 내종병(內腫病) 환자와 같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말하기를 ‘평안하다 평안하다’(레 8:11)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종병(內腫病)을 고침받기 전에는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의사의 사명이 육체의 병을 진단하여 치유하는 것이라면, 종교가의 사명은 마음 속에 있는 죄의 법을 진단하여 치유하는 것이라 하겠습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마음 속에 거하는 죄, 곧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기를 망설이지 말라.

### 두 마음의 작용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의 하는 일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하나님과 마귀를 섬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는, 한 길로 갈 수 없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두 마음을 품은 자는 깨닫음을 받아야 합니다.

객심(客心)과 악심(惡心)과 구심(舊心)을 풀어야 합니다.

완전하지가 못하고, 또는 정심(正心)을 가지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였습니다. 열왕기 상권 1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의 사이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바알을 섬길 것인가? 하면서 머뭇거릴 때에 선지자 엘리야는 외쳐 말하기를 “너희는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좃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좃을 지니라” 하였습니다. 오늘도 천국과 지옥 두 사이에서 두 다리 걸치고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좌우간에 치우쳐야 합니다. 동물 가운데 양서동물(兩棲動物)이 있습니다. 즉 개구리와 박쥐와 같은 것들입니다. 박쥐는 날짐승에게 가면 날짐승 행세를 하고 길짐승에게 가면 길짐승 행세를 합니다. 그래서 동화에, 짐승들이 전쟁을 하다가 평화협정을 맺게 될 때에 박쥐는 날짐승 중에서도 길짐승 중에서도

쫓겨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자들 중에도 이와 같은 자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는 신자가 되고, 가정에 돌아가서는 불신자가 됩니다. 어느 교회학교 교사는 평소에 품행이 방정한 줄 알았는데 어느 연회석에서 하는 행동을 보니 형편 없는 술주정꾼이더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찬송을 부르던 선생님이 음담패설 하는 자가 되고, 강단에서 설교하던 전도자가 카바레 출입을 합니다. 참으로 독실한 신자를 보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신자는 평소에 잘 믿는 독실한 신자인 줄 알았는데, 어느 주일에 교회로 가다가 술 마시는 친구에게 끌려 술집에 들어갔다가 친구의 강권을 못 이겨 몇 잔 마시고 보니 취하게 되어 그만 교회에 참석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후 동네 사람들과의 모임에서 술잔이 오고 가는 중에 그 신자에게도 술잔이 돌아오매 그가 말하기를 나는 신자여서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사양하니,

전 날에 친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를 ‘너는 아무도 없는 데서는 네 다섯 잔씩 마시더니 많은 사람 있는 데서는 금주한다고 하느냐’하며 ‘외식하는 자라’하여 크게 창피를 당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행위입니다. 아직까지 술, 담배와 찻을 끊지 못하고, 교회에 출입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두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부부간에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도 역시 두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 물과 쓴 물을 내겠느냐?”하였습니다. 신자의 입에서 어느 때는 찬송이, 어느 때는 저주와 중상의 말이 나온다면, 되겠습니까? 사람들 중에 엄여가 있는데, 어떤 때에는 남자와 같이 남성(男聲)을 내고 남장을 하고 다니고, 어떤 때는 여자와 같이 여성(女聲)을 내며 여장을 하고 다닙니다. 이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닙니다. 전에 우리 학원에 수양생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을 보았다고 합니다. 남자인 줄 알았는데 후에 알고 보니 여자더라는 것입니다. 어느날 길에서 만났는데 남성 남복이어서 엄여인줄 알았다고 합니다. 신자 중에 두 마음을 가진 자가 꼭 이와 같습니다.

어느 채소장수가 시내에 들어와서 장안에 부녀자들의 아름다움을 보다가 집에 돌아가서 자기 처를 보면 미워서 볼 수가 없는지라, 자기 처에게 풀 보기 실으니 당장 친정집으로 가라 함으로 그의 처는 방에 들어가 화장을 하고 새 옷을 갈아입고 나와 떠나려 하는데, 그 채소장수가 화장을 한 자기 처를 보니 그리 밉지 않은 지라 밀어들면서 ‘그 놈의 것이 미웠다가 고왔다가 한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옷기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처가 미웠다가 고왔다가 함이 아니라 채소장수의 마음에 두 마음이 있음을 나타내 보여 주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친구간에도, 부부간에도 그러합니다. 사람을 대면(對面)하면 듣기 좋게 말하다가 자리가 달라지면 악평하고 험담을 합니다.

### 두 마음의 풀기

호세아서 11장 7절에 보면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하였습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하였으니, 이것은 곧 두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에는 “너희가 달음질을 잘 하더니” 하였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는 열심으로

**우리는 이가서에 술람미 여인에게서 그 정조(貞操)를 배워야 합니다. 이가서의 주인공은 술람미 여자입니다. 그녀는 팔레스타인 북쪽에 사는 어느 목자와 약혼을 하였었습니다. 그 때에 솔로몬 왕은 그녀를 왕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절대로 변심치 않고 양치는 목자만을 사모하였습니다.**

믿는 신자이더니 이제 율법으로 돌아감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 마음의 소행이라 할 것입니다. 어느 때는 열렬하더니 어느 때는 냉냉하고, 어느 때는 불같이 뜨겁더니 어느 때는 얼음장같이 차가워집니다.

어느 집 처녀에게 두 곳에서 청혼 말이 들어왔습니다. 한 쪽 신랑은 인물은 잘 생겼는데 재산이 없어 가난하고, 한쪽 신랑은 재산은 많은데 인물이 잘 나지 못하여 그 부모들은 결정하기가 어려워 당사자인 딸에게 묻기를 어느 편을 택하겠느냐 하니, 딸이 대답하기를 살기는 인물 좋은 남자와 살고 먹기는 재산 많은 남자의 집에 가서 먹겠다고 하더랍니다.

두 마음은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기려는 마음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마음을 정결케 하라”. 누구를 위하여 정결케 할 것입니까?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나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

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하였습니다. 남자는 한 여자를 위하여, 여자는 한 남자를 위하여 정결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약혼한 자들입니다. 그럼으로 더욱 정결해야 합니다. 주님 재림하시어 혼인예식을 거행하기까지 불의에 마음 뺏기지 말고 전심(全心) 전령(全靈)을 그리스도에게만 바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가서에 술람미 여인에게서 그 정조(貞操)를 배워야 합니다. 아가서의 주인공은 술람미 여자입니다. 그녀는 팔레스타인 북쪽에 사는 어느 목자와 약혼을 하였습니다. 그 때에 솔로몬 왕은 그녀를 왕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절대로 변심치 않고 양치는 목자만을 사모하였습니다. 그 때에 솔로몬 왕은 레바논 궁을 화려하게 건축하고 6층 보좌에 금사자를 마주 앉히고 금과 은을 부스러기같이 쓰고, 정원에는 각종 물고기와 새들을 기르며, 1,000여명의 여인

들이 솔로몬을 모셨고, 동식물을 연구하며 작시(作詩)하는, 전에 없던 지혜의 왕 솔로몬이었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궁궐에 양치던 여자가 불려가서 왕의 총애를 받으나 결코 변절하지 않고 말하기를 ‘나의 목자가 어디 있느냐?’ 하며 목자를 사모하였습니다. 그녀는 우리 신자의 전형적(典型的)인 모범을 보여 줍니다. 아가서 4:12절에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하였습니다. 이는 그녀의 굳은 심지를 가르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짐도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마음을 가진 자는 금(金)을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그 마음이 열립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영광스런 그 무엇도, 술람미 여인의 마음을 열지는 못하였습니다.

아가서 6장 10절에는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벌린 군대 같이 엄위한 여자가 누구인가”하였습니다. 이는 여인의 엄숙한 기개를 가르칩니다. 그리스도로 더불어 약혼한 우리 신자의 태도가 이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기상이, 저 술람미 여인과 같이 기치를 벌린 군대와 같이 되어 천사라도 긍정하지 않을 수 없으리 만

치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가서 8장 6-7절에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와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거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니 사람이 그 온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하였습니다. 이는 그 여인의 정결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순진한 사랑을 불로도 어찌할 수 없고, 홍수로도 어찌할 수 없고 재산으로도 어찌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우리도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이러해야 합니다. 세상 권세가 유혹할지라도, 황금이 유혹할지라도, 칼로 위협을 당할지라도 변치 말고, 움직이지 않아야 합니다. 두 마음을 가진 자는 이런 경우에 변절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마음을 가진 자는 저 술람미 여인과 같이 끝까지 주를 공중 혼연에서 영접할 때까지 동요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듬어 정결한가 살펴보고 두 마음이거든 속히 정결한 마음을 받아 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